

# 자율형 고등학교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오범호 · 김성열 · 오세희<sup>†</sup>  
(경남대학교 · <sup>†</sup>인제대학교)

## Improvement of Screening System of Self-initiated Learning in Self-governing High Schools

Beom-Ho OH · Seong-Yul KIM · Se-Hee OH<sup>†</sup>  
(Kyungnam University · <sup>†</sup>Inje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mproving ways of screening of self-directed learning in self-governing high schools for expanding self-initiated learning screening system.

To achieve the above aim, it was used survey method to 99 admission teachers of 12 self-governing high schools and analyzed responses with SPSS program.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o expand self-initiated learning screening system in self-governing high schools, it needs to obtain admission members of entrance committee, pooling of external screening members, quick decision of school admission members, increasing payment, training an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consideration of admission documents and study plan.

Some improving ways of the expanding of self-initiated learning screening may be listed as follows: 1) development of screening model for self-governing schools 2) policy consideration for self-governing public high school 3) expanding autonomy of school 4) supporting budget 5) sharing of operation case and reinforcement of public relations

*Key words : Self-initiated learning screening, Self-governing high school, Improving ways*

### I. 서론

1974년부터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래, 고등학교 입학제도와 체제는 오랜 기간 안정된 정책기반을 유지하여 왔다. 본래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교입시 과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고교입시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교진학단계에서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 주고, 학교 간 교원·시설·재정 등의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학교 운영을 획일화하고,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5-320-3131, shoh@inje.ac.kr, 교육연구센터

\* 이 논문은 연구자들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로 수행한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확대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개선방안 연구(201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오세희 외, 2010).

그동안 정부는 평준화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고교체제의 다양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나민주, 2010). 1980년대 과학고,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 설치, 1990년대 특성화고와 자율학교 등의 설치·운영, 2002년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서 기존의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 외에도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 제도를 도입하였다(김성열, 2006; 2008, 정성수 외, 2009).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고교들이 입학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수상실적이나 인증시험 점수 등 중학교 단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요구함으로써 특수목적고 등의 입학에 대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교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특수목적고 등의 입학 전형 제도가 가진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써 도입된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하여 전형”하는 학생선발방식이다. 이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을 배제하는 한편,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함으로써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비평준화 지역), 자율학교 등 72개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2012학년도에는 실시대상을 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서울 제외),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공립고 및 자율학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95개교로 증

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 2013학년도에는 기숙형고를 비롯한 일반고를 포함하여 160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도입으로 특목고 진학대비반 학원생수,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응시자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습계획서 및 학교장 추천서를 전형에 활용함으로써 성적우수 중학생들의 학교교육 참여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사교육 수요의 억제 및 공교육 정상화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선 현장에서의 이해 정도 부족, 전형 시행을 위한 전형위원의 전문성 부족, 전형업무에 따른 일선 학교의 부담 등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형 시행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현장 차근과 확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로 박효정 외(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현장 적용 실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 주체인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율고나 일반고의 상황과는 다른 특수목적고의 입학전형위원을 주된 설문대상으로 하고 있어, 확대 실시 대상인 이들 학교의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정희상(2012)은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 관하여 관련 집단(학생, 학부모, 교사)을 대상으로 인식 차이를 분석하면서,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 있어 중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은 바, 이의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의 강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내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운영상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학교의 전형위원들의 인식 분석에 근거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운영양상을 드러내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II.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

### 1.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도입배경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09.12.10)”에 의하여 도입된 고등학교 진학단계 전형제도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하여 전형”하는 학생선발방식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2009년 당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되고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목고 등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첫째, 특목고 등 입시에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목고, 자율(립)형 사립고, 국제중 등 영어듣기 평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등은 입학에 위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 있고, 일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수상실적, 인증시험 점수 등을 반영하여 ‘스펙 쌓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목고 등은 개별학교 수준에서 실질적인 입학전형권을 행사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학생선발권을 지닌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교육감의 정교한 점검기제 미비로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배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제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스펙 쌓기와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제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고교진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스펙을 잘 쌓았다고 해서 곧 입학적격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스펙 쌓기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입학전형제도는 무의미한 입시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유발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불리한 계층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바로 2009년 당시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교과지식의 일회적 평가가 아니라 평소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스펙중심의 고교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2.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개념

선발은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조직 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별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동일 학교급 내에서는 고학년으로의 진급제도라는 장치를 통하여,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입학제도를 통해 적격자를 가려내는 과정으로 정의된다(노종희, 1996). 이러한 학생선발은 사회적, 개인적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과학적인 절차와 기제를 통한 학생선발은 사회적 지위와 재화의 배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실현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기여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선발은 개인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학생선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준거는 합목적성과 효과성, 효율성과 실용성,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다. 합목적성과 효과성은 학생선발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선발방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용성과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 또는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선발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선발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뢰성을 얻는 것이다(주현준·오세희, 2011 재인용).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중심으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으로 학생선발의 주요 준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있어 학교에 따라 전형요소의 제한이 있다. 첫째,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로 구성된 자료 활용, 영어 듣기평가 등을 금지하고, 둘째, 각종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수상실적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사교육 유발요소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관련한 용어의 개념정의는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 3.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주요 특징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지원자의 학생생활기록부

<표 1> 자기주도 학습전형 관련 용어

| 용어      | 개념  |
|---------|---|
| 자기주도 학습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계획하고 학습한 후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
| 입학 담당관  |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계획·시행·평가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전문가                      |
| 입학전형 위원 | 서류심사와 면접 등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촉한 교내 전공 관련 입학전형위원과 사·도교육청에서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
| 입학전형위원회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학담당관과 입학전형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을 선발하는 위원회                  |

등의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는 학생의 성취와 잠재력에 평가의 중심을 두는 전형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입학담당관으로 참여하여 평가한다. 입학담당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의 전형절차를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전형위원회는 교내 입학담당관 2명 이상, 교육청 위촉 입학담당관 1명 이상, 학과별 전공 입학담당관 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전형절차 중 1단계에서는 내신성적을 기본으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sup>1)</sup>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인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의 대상은 지원자 전원이다. 다만, 정원의 20% 이상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sup>2)</sup>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교사 추천서 혹은 학교장 추천서를 전형요소로 하였다.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1) 2013년 전형에서는 학습능력 기술 중심의 학습계획서를 핵심인성요소의 평가가 가능한 자기개발계획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2) 공립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선발을 '11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고는 정원의 10%(11) → 15%(12) → 20%(13)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배제하였고, 외고와 국제고는 학과성적 반영시 영어 성적(중학교 1학년 성적 제외)만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교과부가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한 데서 잘 드러난다.<sup>3)</sup> 교과부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에서 학교별 필기고사를 금지하고,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폐지하였다. 또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 외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배제하였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 항목을 신설하고 독서실적 등을 기록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자율학교 등 전·편입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 필기고사로 실시되고 있는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자율학교 등의 전·편입학에 입학전형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대상 학교는 특수목적고 중 외고, 국제고, 과학고, 추첨 이외의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형 사립고, 학교별 선발을 실시하는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고, 자율학교 등 일부 일반고와 추첨 이외의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국제중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6개교, 과학고 21개교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 20개교, 자율형 공립고 27개교, 일반고 16개교, 기숙형고 39개교 등 총 160개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할 예정이다.

3)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제'는 학생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학생선발이 사교육비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학교 등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 Ⅲ. 분석 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2학년도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한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의 입학전형위원회이다. 조사대상 고등학교는 총 24개교로 이 중 자율형 사립고는 19개교이며, 자율형 공립고는 5개교이었다.

2012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율형 사립고 11개교, 자율형 공립고 1개교 등 총 12개교에서 입학전형위원 99명의 자료가 수합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입학전형위원의 구성을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학교유형별로는 자율형 사립고 93명(93.9%), 자율형 공립고 6명(6.1%)이며, 학교소재지는 특별·광역시 73명(73.7%), 도 26명(26.3%)이었다. 직위별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사(54명, 54.5%)와 부장교사(42명, 42.4%)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관

<표 2> 응답자 특성

| 배경변인      |         | 응답자수<br>(명) | 비율(%) |
|-----------|---------|-------------|-------|
| 학교<br>유형  | 자율형 사립고 | 93          | 93.9  |
|           | 자율형 공립고 | 6           | 6.1   |
| 학교<br>소재지 | 특별·광역시  | 73          | 73.7  |
|           | 도       | 26          | 26.3  |
| 직위        | 교장      | 0           | 0.0   |
|           | 교감      | 2           | 2.0   |
|           | 부장교사    | 42          | 42.4  |
|           | 교사      | 54          | 54.5  |
|           | 입학담당관   | 1           | 1.0   |
| 전형<br>업무  | 본부 관리위원 | 8           | 8.1   |
|           | 입학전형위원  | 86          | 86.9  |
|           | 기타      | 5           | 5.1   |
| 전체        |         | 99          | 100.0 |

련 담당 업무에 따라 구분하면 응답자 대부분이 입학전형위원(86명, 86.9%)이었으며, 본부 관리위원은 8명(8.1%)이었다.

## 2.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 목적,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발절차 및 내용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 목적에 대한 문항은 선택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 구분                | 내용              | 문항번호 |
|-------------------|-----------------|------|
| 배경변인              | 학교유형            | 1    |
|                   | 학교소재지           | 2    |
|                   | 직위              | 3    |
|                   | 전형 관련 업무        | 4    |
| 시행 목적             | 시행 목적           | 5    |
| 입학전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의 공정성         | 6-1  |
|                   |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 6-2  |
|                   | 전형위원의 전문성       | 6-3  |
|                   | 전형위원의 업무부담      | 6-4  |
|                   | 보상의 적절성         | 6-5  |
|                   | 전형위원의 수         | 6-6  |
| 선발절차 및 내용         | 제출서류의 필요성       | 7    |
|                   | 서류심사의 평가 지표     | 8    |
|                   | 면접문항            | 9    |
| 개선방안              |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     | 10   |
|                   |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 11   |
|                   | 입학전형위원회의 운영     | 12   |
|                   |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 13   |
|                   | 정성적 평가항목의 기준 마련 | 14   |
|                   | 예산 확보           | 15   |
|                   | 연수              | 16   |

설문문항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 IV. 결과 해석 및 논의

### 1.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의 목적에 대한 인식

입학전형위원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 목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목적에 대한 인식

| 구분                     | 응답지수<br>(명) | 비율<br>(%) |
|------------------------|-------------|-----------|
| 중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유도       | 8           | 8.1       |
| 고등학교 입시 관련 사교육 문제 해소   | 22          | 22.2      |
| 고등학교 설립취지에 적합한 학생 선발   | 22          | 22.2      |
| 학생의 잠재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선발 | 42          | 42.4      |
| 기타                     | 5           | 5.1       |
| 전체                     | 99          | 100.0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 목적으로 ‘학생의 잠재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한 선발’이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한 과도한 사교육 문제 해소’와 ‘고등학교의 설립취지에 적합한 학생 선발’이라는 응답이 각각 22.2%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유도’ 8.1%이었다.

### 2.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형제출서류의 필요성, 서류심사 및 면접 등에 대하여 입학전형위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학내전형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입학전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각각 4.33점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자기주도 학습전형 과정에서 학내전형위원 구성과 입학전형위원회의 운영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위원의 전문성’은 3.97점으로 조사되어 전형위원의 전문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 (N=99)

| 구분                   | 평균   | 표준 편차 |
|----------------------|------|-------|
| 학내전형위원 구성이 공정하게 이루어짐 | 4.33 | 0.64  |
| 입학전형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임    | 4.33 | 0.61  |
| 전형위원의 전문성이 높음        | 3.97 | 0.68  |
| 전형위원의 업무부담이 적절함      | 3.46 | 0.99  |
| 전형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충분함    | 3.26 | 1.01  |
| 전형위원의 수가 충분함         | 3.08 | 0.99  |

‘전형위원 업무부담의 적절성’은 3.46점, ‘전형위원회에 대한 수당의 충족성’ 3.26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형위원 수의 충족성’은 3.08점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각 학교별로 전형위원의 증원에 대한 요구가 다소간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과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서류가 학생 선발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전형제출서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99)

| 구분                     | 평균   | 표준 편차 |
|------------------------|------|-------|
| 내신서류                   | 4.41 | 0.64  |
| 학교생활기록부                | 4.49 | 0.61  |
| 학습계획서(자기주도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 4.18 | 0.84  |
| 봉사·체험활동                | 3.63 | 0.90  |
| 독서활동                   | 3.74 | 0.85  |
| 학교장 추천서                | 2.40 | 0.99  |
| 교사 추천서                 | 2.89 | 1.15  |

제출서류 중 ‘학교생활기록부’(4.49점), ‘내신서류’(4.41점), ‘자기주도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등의 학습계획서’(4.18점) 등이 학생 선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서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독서활동’(3.74점), ‘봉사·체험활동’(3.63점) 등도 보통 이상의 수

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교사추천서’는 2.89점, ‘학교장 추천서’는 2.40점으로 나타나 다른 서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전형과정에서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만일 중학교의 추천서를 학생선발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현재 형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서류심사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용이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67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높았다’는 응답은 3.83점, ‘평가지표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3.9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가지표가 공정하였다’는 4.2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7> 서류심사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 (N=99)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
| 평가지표 개발의 용이성 | 3.67 | 0.81 |
| 평가지표의 변별력    | 3.83 | 0.74 |
| 평가지표의 신뢰도    | 3.90 | 0.65 |
| 평가지표의 공정성    | 4.21 | 0.69 |

면접문항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면접문항에 대한 인식 (N=99)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
| 면접문항 개발의 용이성 | 3.44 | 0.91 |
| 면접문항의 변별력    | 3.79 | 0.82 |
| 면접문항의 신뢰도    | 3.93 | 0.76 |
| 면접문항의 공정성    | 4.21 | 0.64 |
| 면접문항의 난이도    | 3.86 | 0.71 |

‘면접문항을 마련하기 용이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44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류심사 평가지표(3.67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 서류심사 평가지표보

다는 면접문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접문항의 변별력이 높았다’는 응답은 3.79점, ‘면접문항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3.93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서류심사 평가지표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면접문항이 공정하였다’는 4.2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지표와 동일하였다. ‘면접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하였다’는 응답은 3.86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위해 개발한 평가지표 및 문항의 공정성, 신뢰도, 변별력, 난이도 등에 대해 입학전형위원들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서류심사 평가지표나 면접문항 개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지표와 면접문항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한 인식 (N=99)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
| 선발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 확보         | 4.32 | 0.55 |
|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한 홍보 강화       | 3.97 | 0.69 |
|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3.99 | 0.69 |
|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4.33 | 0.62 |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와 ‘선발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 확보’가 각각 4.33점과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3.99

점),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한 홍보 강화’(3.97점)의 순이었다. 입학전형위원들은 모든 항목에 대해 4점 전후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향후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 이들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입학전형위원들은 ‘전형위원의 업무과다’와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형업무를 일반교사들이 담당함으로 인해 수업과 전형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과중과 수업 결손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한 중학교 교원들의 인식 제고’, ‘자율고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중 입학전형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N=99)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
| 전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입학전형위원 수 확대 | 4.30 | 0.69 |
|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학내 입학전형위원 위촉   | 4.16 | 0.71 |
| 퇴임교원 위주의 교육청 위촉 전형위원 참여 배제 | 3.48 | 1.16 |
| 입학전형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   | 4.06 | 0.69 |
|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   | 4.37 | 0.60 |

입학전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과중한 전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별 입학전형위원 수 확대’가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학내 입학전형위원 위촉’ 역시 4.16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에 비해 ‘퇴임교원 위주의 교육청 위촉 전형위원 참여 배제’는 3.48점으로 상대적으로 큰 문제로 인



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외부전형위원 수의 확대나 타 학교와 평가위원 교류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측면에서는 ‘입학전형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는 4.06점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위원회에 대한 연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된 자기주도 학습전형 관련 연수가 입학전형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N=94), 평균은 3.91점으로 비교적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방형 응답 결과, 기존의 연수가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실제 전형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전형업무를 담당한 고등학교의 입학담당관을 중심으로 강사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수과정 참여로 인한 수업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내용은 원격연수로 실시하고, 실습 위주의 구체적·전문적인 내용은 집합연수로 실시하여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특목고와 자율고를 통합한 연수에서 자율고 전형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전형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되, 실무 중심의 연수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은 4.37점으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다. 즉,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정착·확대되기 위해서는 추가된 전형업무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내신반영 과목과 학년’, ‘내신과 면접의 반영비율’, ‘각종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점 내외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기주

도 학습전형에서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입학전형위원들(N=93)은 2.95점으로 보통 이하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형과정에 대한 중앙정부나 교육청 차원에 개입보다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 및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11>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에 대한 인식 (N=98)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
| 내신반영 과목과 학년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결정 | 4.50 | 0.60 |
| 내신·면접의 반영비율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결정 | 4.49 | 0.61 |
|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결정     | 4.51 | 0.61 |

자기주도 학습전형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별 전형료 인상’에 대해서는 3.65점, ‘운영경비 지원’은 4.40점으로 응답하였다. 즉,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를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부담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12> 예산 확보에 대한 인식 (N=95)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
| 학교별 자기주도 학습전형 전형료 인상 | 3.65 | 0.93 |
|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경비 지원    | 4.40 | 0.64 |

#### 4. 논의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개선 방안 모색

이상의 현황 분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박효정 외(2011)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충분한 전형위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형위원 수의 충분성 측면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협의회 등에서도 학교관계자들은 전형위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원의 연수 및 외부전형위원에 대한 정보 획득 등 입학전형위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학전형위원 연수 등을 통하여 가용할 수 있는 교내 전형위원 풀(pool) 확대, 대학 근무 입학담당관에 대한 정보 확충, 퇴임교원의 전형위원 위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전형위원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입학담당관,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 학교 위촉 입학전형위원으로 구성되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팀 단위가 아닌 학교자율로 위촉위원 수를 결정하도록 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둘째, 외부 위촉 관련하여 충분한 풀(pool)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부 위원은 주로 퇴임교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전형 과정을 참여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퇴임교원 뿐만 아니라 관심과 역량 있는 인사를 입학담당관으로 발굴하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충분한 외부 위촉 전형위원의 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외부 위촉 전형위원 풀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를 위하여 교육과학

기술부 또는 교육청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타 학교 입학 전형위원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이를 상호 교차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셋째, 학교 전형 위원을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입학담당관을 학교 차원에서 조기에 지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2월중에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므로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 결정전에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수대상자도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

넷째, 박효정 외(2011)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입학담당관 및 입학전형 위원의 연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신규 연수는 60시간이며, 보수 연수는 30시간으로 되어 있는 데, 연수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개방형 설문 및 협의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수가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실제 전형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전형업무를 담당한 고등학교의 입학담당관을 중심으로 강사 구성이 이루어져 보다 현실성 및 적실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형 설문에서 나타난 입학전형위원들의 연수과정 참여로 인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므로 기초적인 내용은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실습 위주의 구체적·전문적인 내용으로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 연수는 시간을 6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단축하여 실습 중심으로 개편하여 입학전형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 연수는 연수의 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기주도 학습전형 과정에서의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문 조사 결

과에서 나타났듯이 제출서류 중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서류,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등의 학습계획서 등은 학생 선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에 교사추천서와 학교장 추천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서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전형과정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만일 중학교의 추천서를 학생선발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교사추천서의 양식 및 문항을 자율화하고 체크리스트 방식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성영역 평가 및 서술 등은 필수항목으로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학습계획서는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학고와 외국어고에 맞추어 개발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학습계획서를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계획서의 명칭을 자기개발계획서로 변경하고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독서활동을 기록하는 인지영역과 핵심인성요소 관련 활동을 기록하는 인성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기주도 학습전형 과정에서 입학전형 위원들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위해 개발한 평가지표 및 문항의 공정성, 신뢰도, 변별력, 난이도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서류심사 평가지표나 면접문항 개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지표와 면접문항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면접문항의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표준 면접문항을 개발하여 제공하여 주고 각 학교에서는 개별 학교의 특성에 맞게 원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입학 전형위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 등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설문 조사에서 전형위원 수당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관계자들과의 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 전형위원의 수당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형료를 인상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서 최고 한도를 설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현행 자율형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태에 대한 입학전형업무 담당자의 인식 분석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입학전형위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인력 확보, 박효정 외(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강화, 입시수당의 인상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전형 운영의 측면에서는 현재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필요 여부에 재검토 및 자율고 특성에 부합하는 양식의 개발, 서류심사 평가지표 및 면접문항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자율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자율고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은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자율

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 학교는 이를 토대로 개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는 학생이 자율형 사립고 보다 적은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입학전형위원의 확보, 예산 운용 등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자율형 공립고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평가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기주도 학습전형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나 교육청 차원의 개입보다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 선발비율 및 전형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및 협의회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의 잠재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선발이 가능하므로 학교에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일정부분의 재정을 지원하여 입학전형위원의 수당 및 각종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정희상, 2012).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해 보면 전형요강만 탑재되어 있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협의회시 학교관계자들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운영 사례를 정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시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한 인식이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학교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정희상, 2012). 특히 중학교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독서활동, 인성 등 학생에 대하여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학교 교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면(박효정 외, 2011)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정착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시사점 등 연구결과들은 향후 확대 시행될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정착을 위한 세부적 과제의 탐색을 위한 후속 연구 주제로서도 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대구광역시교육청(2012). 2013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길라잡이.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대구광역시교육청(2011).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길라잡이.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1학년도 외국어고·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본격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
- 김성열(2006). 교육의 수월성증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 지방화시대 교육

- 경쟁력 강화방향과 과제, 보고서.  
김성열(2008). 고교다양화·특성화 추진방향과 과제,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강국실천연합 제1차 워크숍 자료집.  
나민주(201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자료집.  
노종희(1996). 교육제도론(교육행정학 전문서 2). 서울: 하우.  
박효정·김효원(2011).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운영 보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오세희·김기민·정성수(2010). 경남의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 및 해소방안 탐색, 수산해양교육연구 22(1), 52~66.  
정성수·김재금·김훈호·오세희(2009).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1(4), 592~606.  
정희상(2012).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 관한 관련 집단 간 인식 차이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현준·오세희(2011).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제도에 대한 교원 인식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2), 213~235.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http://www.mest.go.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http://www.kedi.re.kr)
- 
- 논문접수일 : 2012년 10월 31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12월 02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31일